

들어다보고 싶은 '유리정원'

February, 2016

TOPIC

# ART FIELD

들어다보고 싶은 '유리 정원'

보라빛 그라데이션으로 채색된 유리구슬이 영롱한 빛을 발한다. 금방이라도 몸을 잔뜩 움츠렸다가 펴져 도약할 것만 같은 이 작품은 장-미셸 오토니엘 개인전 (Black Lotus)(국제갤러리 2. 2~3. 27)의 출품작 (Purple Lotus)(2015). 작가는 식물의 곡선을 기하학적이고 자유로운 형태로 재해석했다. 거울 유리로 제작된 조형물은 빛을 반사하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.